

“문재인 정권, 개혁 역주행 멈춰라”

2018년 전국 민중대회 열어 ... “11월 총파업 이어 민중 요구 쟁취 12월 투쟁 전선친다”

전국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개혁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촛불 개혁을 이어가라고 요구하는 2018년 전국 민중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노·농·빈의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혁 역주행 저지, 적폐 청산, 개혁 입법 쟁취 2018년 전국 민중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1만 5천여 명의 민중이 모여 문재인 정권의 친재벌, 반노동, 빈민중 정책을 비판했다.

대회 참가 민중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으로 인상 ▲폭력 강제철거 중단 등 노동자, 농민, 빈민이 가장 시급하게 이뤄야 할 요구사항을 함께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동 대회사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한 게 없다. 재벌에게 모든 걸 팔아먹고, 비판하는 세력은 기뻐다. 노동자는 사지로 몰았다”라며 “농민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도시 빈민의 삶터는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는 세상은 그대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가 재벌에게 장시간 노동을 선물하고 노동자는 과로사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세상을 만들려 한다. 비정규직을 그대로 두려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으로 촛불 개혁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다. 12월에 전태일 정신, 백남기 정신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이 요구하는 투쟁의 전선에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공동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문화상 국회의장이 쌀값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한다. 완전 사기꾼이다. 쌀값이 오른다며 재고미를 방출하는 정권은 국민의 배신자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이 준 정권이 고 배지다. 국회의원들이 농업에 제초제를 뿌리려 하면 우리는 그들의 손발을 자르자고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공동 대회사에서 “수협이 부동산 개발과 카지노 설치를 위해 노랑진 수산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용역강매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점 가이드라인은 명백한 사기다. 독재 정권이 벌인 사업을 현 정부가 이어가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서울시와

수협의 노점, 영세상인 탄압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민중대회 참가자들은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치, 사회 요구를 함께 외쳤다.

이날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민중 대회에 앞서 여의도 곳곳에서 사전대회를 벌이며 각 부문의 요구를 알렸다. 민주노총은 사전대회로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비랑 끝으로 몰렸다.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임금을 깎는 극도로 나쁜 정책이다”라며 “정권은 광주형 일자리로 노동의 질을 낮추고, 조선에 이어 자동차 산업까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한판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민중대회를 마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참가단위별로 국회를 앞에 두고 좌우로 나뉘어 행진을 벌였다. 민중공동행동은 본래 국회를 포위하는 행진을 벌이려 했지만, 경찰은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영등포의 자유한국당사로 행진하고, 농민과 빈민들은 서강대교 방면으로 행진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8년 노조파괴, 다른 마음 먹지말고 끝내자”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농성 46일만에 정리 ... “우발 폭력 유감, 지회는 대화와 대안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서울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농성을 46일 만에 정리하고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에서 현장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11월 29일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45일을 기다려온 노사교섭, 결국 걸어 차 버린 유성기업’ 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이 8년 동안 저지른 노조파괴 음모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0월 15일 부터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농성하며 노조파괴 금지와 2011년 이후 합의하지 못한 임금과 단체협약을 놓고 교섭을 요구했다. 지회가 서울사무소 농성을 벌이는 45일 동안 회사는 상견례와 단 한차례의 교섭에 얼굴을 내밀었다.

유성기업은 현재 다수노조인 유성기업지회를 무시하고 어용 기업노조와 집중 교섭을 벌여 합의에 근접했다. 회사가 유성기업지회 파괴를 위해 차별과 배제 중심의 노무관리를 유지하자 조합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상경 투쟁 46일 동안 유시영 회장 얼굴은 보지 못했고, 교섭은 헛들었다. 조합원들이 기업노조와 회사가 교섭 타결에 압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게 이번 사태의 배경이다” 라고 정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8년의 악랄한 노조파괴가 여전하기에 터진 불행한 사건이다. 이제 노조파괴를 끝내야한다. 금속노조는 회사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지금 성의 있게 대화에 나섰으면 한다” 라고 권고했다.

유성기업지회는 김 아무개 노무담당 상무와 조합원 사이에 벌어진 불상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회는 언론과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자본을 편드는 시각으로 해석하고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지난 8년 동안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폭력과 인권유린에 침묵한 언론과 정치권이 노조 혐오를 퍼뜨리기 위해 이번 사건에서 노조파괴라는 맥락을 무시하고 폭력만 부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지회장으로서 11월 22일 벌어진 사건에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 하지만, 유성기업에서 지난 8년 동안 벌어진 사건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라며 “8년에 걸친 유성기업의 탄압과 폭력은 무시무시했다. 용역강패를 동원해 두개골과 코 뼈를 부러뜨리고, 대포차를 동원해 인도에서 사람을 깔아뭉개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폭력이 일상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노조파괴로 노동자 세 명이 우울증

으로 숨지고 조합원 54%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런 사실은 언론이 왜 보도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라며 “8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주인이 머슴을 때리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머슴이 주인을 때리면 뉴스가 되는 것 같다. 사고가 벌어진 상황은 불과 1-2분이었다” 라며 “지회는 더이상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부 농성을 해제하겠다. 지회는 노사 교섭과 대화를 통한 노조파괴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다” 라고 다시 강조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회사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노조파괴 사태 해결을 외면하고 탄압을 지속한다면 유성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밝혔다.